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 '-니까'의 인지·화용론적 연구 시론

서성고(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gnitive Pragmatic Approach to Discourse Connectives

Sung-kyo Suh (English Dept., Sogang Univ.)

요 약

이 논문에서는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의해서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 특히 담화표지(discourse marker) '-니까'가 담화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니까'는 이제까지 '-(으)니-'와 별 의미나 기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통사·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 온 데 기인한다. 그러나 '-니까'는 엄연히 '-(으)니-'와 별개로 존재하고 있고, 더욱이 통사적으로 '-(으)니-'보다는 '-니까'가 나중에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니까'는 '-(으)니-'에 없는 특정한 기능을 반드시 수행하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통사·의미론적인 관점이 아닌 인지·화용론적 관점에서 '-(으)니-'와 '-니까'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니까'를 포함하는 '그러니까'도 함께 살펴보고 한다. '그러니까'는 담화상에서 그에 선행하는 모든 정보를 맥락적 배경지식으로 놓고, 후속되는 발화를 그에 대한 맥락 함축(contextual implication)으로 나타내는 화용론적 기능을 담당하는 담화 연결표현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영어의 'so'가 'therefore', 'thus', 'hence' 등과 구별되고, 그 기준이 적합성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듯이, 우리말의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등과 구별되며, 그 차이점이 적합성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현대 한국어의 여타 접속어미에도 본고에서와 같은 새로운 관점 또는 이론의 틀로써 잘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폭넓고 정밀하게 분석 연구하는 일이 요구된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한다.

1. 시작하는 말

現代 韓國語 接續語尾 '-(으)니까'는 이제까지 '-(으)니'와 별 意味 差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이들 두 접속어미는 마치 同一 形態素의 異形態등인 것처럼 處理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既存의 研究가 주로 統辭, 意味論的 觀點에서 수행되어 온 데 起因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논의가 옳다면,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하나로서 '-(으)니까'가 '-(으)니'와 別個로 存在할 必要가 있을까 하는 疑問이 생긴다. 더욱이 通時的으로 '-(으)니'보다는 '-(으)니까'가 나중에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으)니까'는 '-(으)니'가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機能을 반드시 擔當하리라는 推測이 可能하다.

이제까지 통사, 의미론적으로 수행된 여러 연구로부터 '-(으)니'와 '-(으)니까'를 구별짓는 차이점 또는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간의 辨別點을 研究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이론들, 즉 談話, 話用論的인 觀點에서 '-(으)니'와 '-(으)니까'를 분석함으로써, 특히 '-(으)니'에 添加된 것으로 보이는 '-까'의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既存의 研究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으)니까'를 '-아서'와 함께 [原因], [理由]의 意味를 지닌 접속어미로 크게 分類하였다. 이러한 분류의 틀 속에서 '-(으)니까'는 각 연구자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다양한 意味 機能的 名稱을 附與받았으나 이들이 대략 [원인], [이유]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 가운데 '-(으)니까'를 화용론적 관점에서 기술한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

1) 본고에서는 '-(으)니'와 '-(으)니까'에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니-'를 別個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 한국어 자료의 경우에 있어서 '-(으)니'와 '-(으)니까'는 自由 變移 關係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까'가 '-(으)니'에 添加된 것으로 간주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 접속어미 전반을 살펴 보더라도, 김승곤(1978, 1979, 1980, 1981), 남기심(1978), 송문준(1985), 유동준(1980), 이기동(1979), 이환목(1981) 등이 주로 理由, 原因 構文의 話用上 差異를 중심으로 개별 접속어미를 다루었고, 전해영(1989)이 情報傳達 및 話者의 態度 측면에서 접속어미를 고찰한 정도다. 본 항에서는 기존의 연구 가운데서 ‘-(으)니까’를 話用論的, 認知論的으로 言及한 몇 가지 論議를 紹介하고 그들의 問題點을 아울러 指摘하고자 한다.

2. 1. “話者의 判斷 및 推論”으로서의 ‘-(으)니까’

이상복(1981)에서는 ‘-(으)니까’가 “話者의 推測 判斷 및 그에 따른 結果의 記述”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어 온 [원인], [이유]라는 의미 기능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상복(1981)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 (1) 가. 그동안 통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나쁠 거예요.
나. *그동안 통 공부를 안 해서 당연히 성적이 나쁠 거예요.
- (2) 가.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 *안 배워서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1가)와 (2가)는 文法的 文章이고, (1나)와 (2나)는 非文法的 文章”이라고 논의하면서, “‘-(으)니까’ 구문에서는 화자가 後行節의 內容을 當然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으)니까’ 구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절은 화자가 추측 판단한 이유(원인), 후행절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으)니까’는 화자의 추측 판단에 의한 이유(원인)와 당연한 결과를 연결해 주는 어미임을 알 수 있다(이상복 1981: 11-12)”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자체에 무리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적어도 그가 논의에 동원한 우리말 資料의 文法性의 判定에는 無理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1나)의 문장이 완전히 非文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2나)의 경우에 強勢를 ‘안 배워서’에 두고 말해 보면 능히 贅話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 2. 事實에 대한 確認 및 判斷 / 同時性으로서의 ‘-(으)니까’

김진수(1983)에서는 ‘-(으)니까’의 의미가 “事實에 대한 確認이나 判斷”을 거쳐야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 (3) 가. ?네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잔다.
나. *네 걱정을 하니까 잠을 못 잤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3가)의 ‘-아서’에는 현재형이 쓰이면 어색하고 (3나)의 ‘-(으)니까’에는 過去形이 오면 非文이 되는데, 이는 ‘-아서’가 시간의 계기성이 의미자질로서 기능하고 ‘-(으)니까’는 同時性이라는 意味資質을 갖고 있는데서 연유한 것(김진수 1983: 96)”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판단’이 과연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런 확인이나 판단이 화/청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으)니까’가 발화 가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여기서도 (3나)가 완전히 非文인가에 대해서는 疑問이 생긴다. 앞서 이상복(198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진수(1983)의 논의에서도, 그 論據를 提供하는 例文의 分析 內容에 疑問이 提起된다면, 이는 그들의 논의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낳게 된다.

2. 3. 談話空間의 調整 機能

유동준(1980)에서는 ‘-(으)니까’가 “話者에 의한 談話空間의 誘導”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담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담화공간이 같아야 한다. 화자는 청자의 담화공간이 자신의 그것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듣는 이의 담화공간을 자신의 담화공간 안으로 유도해야 한다. 접속어미 ‘-(으)니까’는 바로 이러한 담화

의 부자연스러운 내지는 막힘을 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쓰인다. 이때의 ‘-(으)니까’가 바로 [導入], [說明]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4) 가: 뒷산에 가보니까 나무가 많지?

나: 응, 근데 거의가 소나무야.

(5) 가을이 되니까 참 신선하죠!

그러나 전혜영(1989)에서는 이를 反駁하고 있다. 즉, 담화공간의 유도는 ‘-(으)니까’만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혜영(1989)에 의하면, “접속문 자체의 화용상의 기능이 話脈을 形成해 줌으로써 단문의 형식에서 전달할 수 없는 정보를 다양하게 전하는 데 있으므로, 화자의 담화공간 안으로 유도하는 것은 [설명] 구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모든 接續文에 該當된 것으로 봐야 할 것(전혜영 1989: 138)”이라고 논의한다. 그는 그 증거로 “옛날이야기의 시작이나 청자가 모르는 새로운 대상을 도입, 설명하는 경우에는 ‘-(으)니까’가 쓰이지 못하고 ‘-은데’가 쓰인다(전혜영 1989: 139)”고 한다. 다음 예를 살펴 보면,

(6) 가. 옛날에 바닷가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나. 어제 손님이 오셨는데

다. 구내서점에서 이 시집을 샀는데 요즘 베스트셀러인가 봐.

(6가~다)의 경우에 ‘은데’ 대신에 ‘-(으)니까’를 사용하면 모두 非文이 된다고 전혜영(1989)은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 논의가 옳다면 앞서 언급한 유동준(1980)의 논의는 비단 ‘-(으)니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으)니까’의 기능을 옳게 설명해낸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2. 4. 舊情報集束으로부터의 脈絡選擇 機能

전혜영(1989)에서는 ‘-아서’와 ‘-(으)니까’를 구별하는 논의과정에서 ‘-(으)니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으)니까’는 舊情報가 있을 때에나, 청자가 알고 있으리라는 화자의 믿음이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으)니까’가 명령, 청유형의 후행절과 호응할 수 있는 것도 話者가 提示하는 理由를 聽者가 理解하고 있으리라는 前提下에 聽者에게 行動을 誘導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유보다는 행동 유도에 있으므로 後行節에 情報焦點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전혜영 1989: 118-119).

이러한 논의와 함께 전혜영(1989)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7) 가: 어제 왜 학교에 안 왔니?

나: ㄱ. 배가 아파서 안 왔지.

ㄴ. 배가 아프니까 안 왔지.

그의 논의를 따르면, “(나 ㄱ)은 단순히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상대방에게 新情報를 提供하기 위한 것이고, (나 ㄴ)의 경우는, 화자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배가 아프다’는 진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전제하고 있다고 봐서, 상대방이 전제하고 있는 잘못된 이유를, 그에게 주어진 舊情報들 가운데 존재하는 그 진짜 理由로 환기, 수정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話用論的인 것으로서, 종래의 연구와 비교할 때 비교적 새로운 관점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신정보와 구정보간의 관계로만 이들 접속어미의 변별점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전혜영(1989)에서도 스스로 지적했듯이, 이미 주어진 정보가 있음에도 ‘-아서’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²⁾

2) 전혜영은 남기심, 루코프(1983: 22-23)의 예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청자: 버스가 한 대도 안 다니던데요. 걸어왔어요?

전혜영(1989)에서는 또한 ‘-(으)니까’의 경우에 화제 또는 정보의 초점이 후행절에 있다고 논의하는데, 이는 설명 방식은 다르지만 本稿의 立場과 같은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 (8)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 (9) 영희가 아프다니까 같이 문병가자.

(8), (9)의 경우에 화제의 초점이 후행절의 행동에 있다고 논의한다. 즉, 선행절은 행동 수행에 대한 이유 제시이며, 이같은 이유는 聽者도 알고 있는 知識 (즉,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점은 본고의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 5. ‘-(으)니’와 ‘-(으)니까’의 區別

강기진(1985)는 ‘-(으)니’와 ‘-(으)니까’가 완전한 자유변이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으)니’와 ‘-(으)니까’를 본격적으로 구별해 보고자 시도한 연구가 아닌가 싶다. 그의 논의를 따르면, 종래의 연구가 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찾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으)니’와 ‘-(으)니까’를 [이유], [원인]이라는 동일한 의미범주 속에서 形態素의 異形態로 간주해 왔으므로, 다음 예에서와 같이 ‘-(으)니’와 ‘-(으)니까’는 統辭的으로 換言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 (10) 가. 서울에 오니 자동차가 많더라.
나. 서울에 오니까 자동차가 많더라.
다. 물가가 오르니 살기가 힘들다.
라. 물가가 오르니까 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런 통사적 특징은 분포 범위에 있어서 자유변이적 성격을 띄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으)니’와 ‘-(으)니까’의 자유변이가 가능하지 않은 환경이 존재하고, 따라서 ‘-(으)니’와 ‘-(으)니까’를 한 형태소의 異形態들이라고 取扱하기는 困難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11) 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가겠다.
나. *이렇게 사느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가겠다.

이 예문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 ‘-(으)니까’가 {-거-}, {-느-}, {-더-}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종류의 예는 윤평현(1989)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 (12) 가. 날씨가 춥더 {-니, *-니까} 얼음이 얼었다.
나. 고향에 갔더 {-니, *-니까}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또한 한동완(1990)은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와는 별개로 [狀況 提示] 구문에서 ‘-(으)니’는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으)니까’는 쓸 수 없다고 지적한다.

- (13) 키 큰 사나이가 왔으 {-니, *-니까} (그 이름은) 홍길동이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까’가 {-었}, {-겠}과 통합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 (13)에서 {-었}과 ‘-까’가 통합될 수 없는 현상은 특기할 만하다고 논의하면서, 이러한 통합 불가능성은 {-거-}, {-느-}, {-더-} 등이 아예 ‘-까’와의 통합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으)니’와 ‘-(으)니까’에 어떤 차이가 있을

- 화자: ㄱ. 응, 버스가 없어서 걸어왔어.
나. ?응, 버스가 없으니까 걸어왔어.

이 때에는 새로운 정보라기 보다는 보충해주는 덧붙이기말로 쓰이는 경우에 ‘-아서’ 형이 쓰인다고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역시 신정보 및 구정보의 개념만으로는 ‘-아서’와 ‘-(으)니까’가 잘 변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예라 하겠다.

것이라는 점만 지적하고는 본격적인 논의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항에서는 ‘-(으)니’와 ‘-(으)니까’의 변별점을 깊이 논의한 강기진(1985)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나아가서 ‘-(으)니’에 첨가된 ‘-까’의 談話, 話用論的 機能을 論議하고자 한다.

3. 강기진(1985)의 검토

강기진(1985)에서는, ‘-(으)니’와 ‘-(으)니까’는 모든 분포에서 자유변이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으)니’와 ‘-(으)니까’가 어느 환경 아래서 환언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相應하는 意味差異를 同伴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종래에 ‘-(으)니까’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던 [이유], 또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라는 개념을 ① 直接的, 非個人的인 이유 및 원인, ② 間接的, 個人的인 이유 및 원인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고, 여기서 ①의 경우는 客觀的, 實證的인 성격을, ②의 경우는 主觀的, 心理的인 성격을 갖는다고 논의한다.

- (20) 가. 저희도 따로 집을 짓고 나갈테니, 올 가을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나. 저희도 따로 집을 짓고 나갈테니까, 올 가을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즉, (20가)의 경우 ‘저희도 따로 집을 짓고 나간다’는 발화의 근거는 화/청자 모두에게 상호 공유되어 있는 것이고, (20나)의 경우는 그 근거가 화자 자신만의 심리적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결국 ‘-(으)니’는 실증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화자의 확신에 쓰이나, ‘-(으)니까’는 심리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비실증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화자의 확신에 쓰인다는 주장이다. 계속되는 논의에서 그는 다음의 예를 제시한다.

- (21) 가. 서울에 가니 차도 많더라.
나. 서울에 가니까 차도 많더라.

이 경우에 (21가)의 화자는 ‘서울에 차가 많은’ 이유를 ‘서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상정했고, 또한 이런 상정이 다른 사람들도 이런 一般的 想定을 認識하고 있을 것으로 判斷하여 ‘-(으)니’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화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일반 사람들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이 그 인식을 같이 한다고 상정될 때에도 ‘-(으)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자는 자신의 판단내용 자체는 실증적, 일반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이 실증적, 일반적인 것이라고 스스로 간주하면 ‘-(으)니’를 선택하여 발화한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그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강기진(1985)에서 주장하는 바, ‘-(으)니’와 ‘-(으)니까’의 변별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22)

‘-(으)니’	‘-(으)니까’
直接性	間接性
實證性	心理性
必然性	蓋然性

그러나 그의 논의에 동원된 여러 概念들이 충분히 制約 또는 規定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는 점이 問題로 지적될 수 있다. ‘직접성’과 ‘간접성’, ‘실증성’과 ‘심리성’, 그리고 ‘필연성’과 ‘개연성’ 등의 개념들이 과연 어떤 意味實質을 갖는 것들이며, 談話 參與者 가운데 누구의 觀點에서 이들 개념이 제약되는 것인지, 또한 ‘실증’적인가 ‘심리’적인가의 判斷基準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論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의 (22)에 정리된 내용만 갖고는 ‘-(으)니’와 ‘-(으)니까’를 구별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령 다음 예를 살펴 보자.

- (23) 옛날에 두메산골 어느 마을에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 (-는데, -으니, *-으니까)

이것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는 發話인데, 이때 ‘-(으)니’의 선행절의 내용은 전혀 ‘직접적’, ‘실증적’, ‘필연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間接的’, ‘心理的’, ‘蓋然的’인

내용에 더 가까운데, 만일 강기진(1985)의 논의가 옳다면 이 경우에 왜 ‘-(으)니’가 사용 가능한 반면에 ‘-(으)니까’가 나타나면 結果가 非文이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제시] 구문을 살펴 보자.

(24) 키 큰 사나이가 왔 (-는데, -으니, *-으니까) (그 이름은) 홍길동이었다.

이 경우도 위의 (22)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없기는 (23)의 경우와 사정이 같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살펴 보기로 하자.

(25) 구내서점에서 이 시집을 샀 (-는데, *-으니, *-으니까) 요즘 베스트셀러인가 봐.

‘구내서점에서 이 시집을 샀다’는 내용은 대단히 직접적인 것이고, ‘이 시집’이라고 발화했다는 것은 이미 화자가 청자에게 시집을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는 ‘實證的’이면서 또한 ‘必然的’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22)에서 예측하는 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으)니’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이때 ‘-(으)니’가 사용되면 그 結果는 非文이 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으)니’와 ‘-(으)니까’의 변별점을 그 ‘의미차이’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정민(1980)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으)니’에 ‘-까’를 첨가함으로써 생기는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정민(1980)에서는, “‘-(으)니’가 話者의 内心에 密着된 데 반해서 ‘-(으)니까’는 약간 더 客觀的이며, 理由를 답에 있어서 主節에 좀 더 緊密히 連結되어 있다고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본다”고 논의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를 엄격한 의미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담화, 화용론적인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다음 항에서는 담화,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까’의 기능을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4. ‘-까’의 先行節 前景化 沮止機能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으)니’와 ‘-(으)니까’에 共通的으로 들어 있는 ‘-니-’가 同一한 形態라는 점을 前提로 하고, 본 항에서는 ‘-(으)니’에 첨가되는 ‘-까’가 지니는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 예를 살펴 보자.

- (26) 가. ‘적합성’이란 영어의 ‘relevance’를 번역한 말이니, 청자가 정보처리에 들인 노력과 그로부터 얻는 맥락효과로 산정되는 개념이다.
나.?? ‘적합성’이란 영어의 ‘relevance’를 번역한 말니까, 청자가 정보처리에 들인 노력과 그로부터 얻는 맥락효과로 산정되는 개념이다.

위의 예는 ‘적합성(relevance)’이란 용어의 概念을 說明하는 내용이다. 즉, ‘적합성’은 ‘청자가 정보처리에 들인 노력과 그로부터 얻는 맥락효과로 산정’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26가)보다 (26나)가 훨씬 더 어색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예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 (27) 가. 키 큰 사나이가 왔으니, (그 이름은) 홍길동이었다.
나. *키 큰 사나이가 왔으니까, (그 이름은) 홍길동이었다.
다. 키 큰 사나이가 왔으니, 이젠 걱정이 없다.
라. 키 큰 사나이가 왔으니까, 이젠 걱정이 없다.

보편적 담화조건에서 (27나)는 수용 불가능한 발화다. 이는 물론 ‘키 큰 사나이가 왔다’는 명제 형태에 ‘-(으)니까’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27라)의 경우는 수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要點은 後行節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설명의 편의상 (27가)와 (27다)를 아래에 다시 인용하고자 한다.

- (27) 가. 키 큰 사나이가 왔으니, (그 이름은) 홍길동이었다.

다. 키 큰 사나이가 왔으니, 이젠 걱정이 없다.

이들은 모두 ‘-(으)니’로 연결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예다. 선행절의 내용, 즉 키가 큰 사나이가 왔다는 것은, 청자가 후행절을 처리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인지공간 속에서 背景(background)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 先行節을 背景知識으로 하여 청자는 후행절을 처리하게 되는데, (27가)의 경우에 청자가 후행절을 처리하려면, 배경지식인 ‘키 큰 사나이’를 다시 前景(foreground)으로 불러내서 ‘홍길동’이라는 새로운 정보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7다)의 경우에는 배경지식인 ‘키 큰 사나이’를 다시 액세스(access)할 필요 없이 새로운 정보인 ‘걱정이 없다’만 前景에 놓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접속어미 ‘-(으)니’는 선행절의 내용이 그대로 背景에 머물러 있건, 아니면 후행절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前景으로 액세스되어 나오건 간에 아무런 장애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으)니까’의 경우를 살펴 보자.

(27) 나. *키 큰 사나이가 왔으니까, (그 이름은) 홍길동이었다.

라. 키 큰 사나이가 왔으니까, 이젠 걱정이 없다.

이들은 앞서 (27가) 및 (27다)와 동일한 자료로 이루어진 발화이지만, ‘-(으)니까’로 연결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로 인해 (27나)가 수용 불가능한 발화가 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제 (27나)가 수용 불가능한 이유를 前景 및 背景 개념에서 찾아 보자. (27라)의 경우는 후행절의 명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행절을 前景에 불러올 필요가 없는데 반해, (27나)의 경우는, (27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키 큰 사나이’라는 선행절의 내용을 前景으로 액세스해 놓아야만 후행절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27나)가 수용 불가능한 발화가 된다는 것은, 발화 속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선행절이 前景으로 액세스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으)니’로 연결한 (27가)는 수용에 무리가 없는 반면에 ‘-(으)니까’로 연결된 (27나)가 수용 불가능한 발화가 된다는 점으로부터 우리는, 선행절의 내용이 다시 前景으로 액세스되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은 바로 ‘-까’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논의가 옳다면, 이제는 ‘-까’가 결합될 수 없는 발화들을 하나하나 살펴 보면서 본고의 논의와 기존의 논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혜영(1989)에서는 ‘옛날이야기의 시작이나 청자가 모르는 새로운 대상을 도입, 설명하는 경우에는 ‘-(으)니까’가 쓰이지 못하고 ‘-은데’가 쓰인다’고 논의하면서 다음 예들을 제시했다.

(28) 가. 옛날에 바닷가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 (-는데, -으니, *-으니까)

나. 어제 손님이 오셨 (-는데, -으니, *-으니까)

(28가)의 경우에 어떤 내용이 뒤따를 것인가를 추정해 보면 ‘-(으)니까’가 쓰일 수 없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3가)는 선행절에 들어 있는 ‘할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옛날이야기로 후속되는 경우다. 따라서 선행절을 ‘-까’로 막아 버리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으)니까’를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28나)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이 경우에는 후행절에 어떤 내용이 오느냐에 따라 ‘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가 수용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 예를 살펴 보자.

(29) 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서울랜드에 놀러가지 못했던 거지요.

이 예에서처럼 ‘우리가 서울랜드에 놀러가지 못했던 거지요’라는 새로운 정보가 후행절에 前景으로 나타남으로써 해서 ‘어제 손님이 오셨다’는 선행절의 내용을 前景化시킬 필요가 없으면 ‘-(으)니까’를 사용했어도 수용 가능한 발화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오히려 ‘-는데’를 사용하면 발화가 더 어색해진다.

결국 ‘새로운 대상을 도입, 설명’하는 데 ‘-(으)니까’가 쓰이지 못한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까’가 나타나면 후행절에 새로운 정보가 前景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까’의 선행절은 背景적 지식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으)니까'의 경우 情報 焦點이 後行節에 있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까'가 선행절의 내용을 背景으로부터 前景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後行節에 情報 焦點을 지닌 新情報가 나타나는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으)니까'가 {-거-}, {-느-}, {-더-}와 결합할 수 없는 다음의 예들을 살펴 보자.

- (30) 가. 주머니 받거나 하면서 선물을 교환한다.
 나. *주머니 받거나 받거나 하면서 선물을 교환한다.
 다. 철수는 서울로 가느니 안 가느니 하고 친구와 다투었다.
 라. *철수는 서울로 가느니까 안 가느니까 하고 친구와 다투었다.
- (31) 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가겠다.
 나. *이렇게 사느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가겠다.
 다. 짓느니 한숨이고 흐르느니 눈물이다.
 라. *짓느니까 한숨이고 흐르느니까 눈물이다.
- (32) 가. 고향에 갔더니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나. *고향에 갔더니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다. 옛날에는 이곳에 나무가 많더니 지금은 풀 한 포기 없다.
 라. *옛날에는 이곳에 나무가 많더니 지금은 풀 한 포기 없다.

(30가)-(30라)의 예는 '하다' 내포문이라는 통사적 특성이 있어서 본고의 여타 예문들과 동일 층위에서 고려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 역시 앞서 다룬 예들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주머니 받거나' 또는 '가느니 안 가느니'와 같은 내용은 '...하며 교환한다'나 '...하며 다투었다'를 처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까'가 붙어서 이들 내용을 背景으로 묶어 버리면 '...하며 교환한다'나 '...하며 다투었다'를 처리하는 시점에 가서는 정보처리 과정 자체가 정지하거나 와해된다. 그러므로 '하다' 내포문에서는 '-(으)니까'가 {-거-}, {-느-}, {-더-}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서태룡(1988, 1990)은 '-(으)니-'가 동명사 어미 {-은}과 어말어미 {-이}가 통합하여 재구조화된 것이며, '-(으)니까'에서 '-(으)니-'도 {-은}과 {-이}로 분석되고 '-까'는 {-스-}과 {-가}의 통합형으로 분석한다³⁾. 여기서 {-스-}은 선행 언어표현에 대한 [청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의미로 나타내며, {-가}는 선행 언어표현을 [미완결]하고 그 다음에 '말 끝 언어'로 [연결]하는 의미로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30)의 경우와 같이 '-(으)니-' 앞에 [청자의 미지각]을 나타내는 {-거-}가 통합된 '-거니' 다음에는 '-까'가 통합될 수 없다고 논의한다.

'거니까'가 불가능한 이유는 [청자가 미지각]한 '거니'의 선행 서술에 대한 [청자의 확인]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거-}의 의미가 화자의 사유의 세계를 포함한 가능세계, 곧 [청자의 미지각]을 나타내므로 '-거니'의 선행서술은 청자가 지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청자가 지각조차 하지 못한 내용을 {-스-}에 의해 청자의 확인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서태룡 1990: 613)

이와 같은 그의 논의는 용어는 다르지만 본고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가)-(31라) 및 (32가)-(32라)는 '하다' 내포문이 아닌 경우에 '-(으)니까'가 {-느-}, {-더-}와 결합할 수 없는 예다. 이들의 경우에 왜 '-까'가 부가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서태룡(1988)의 논의에 힘입을 수 있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느-}와 {-더-}는 다음과 같은 意味를 지닌다.

{-느-}의 의미: {-느-}는 발화중인 시점에서 지속되는 행동이나 상태의 [현재지각]을 나타낸다.

3) '머슴니까'와 같은 '-습니까'의 '-니까'는 선어말어미 {-느-}와 {-으이-}가 통합한 다음에 '-까'를 통합한 것이고 '-으니까'는 동명사어미 {-은}과 어말어미 {-이}가 통합된 다음에 '-까'를 통합한 것이므로 '-까'의 앞 구성요소가 다르다(서태룡 1990).

{-더-}의 의미: {-더-}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지각]을 나타내는데 발화중인 시점에서 [과거지각]을 다시 [지각]한 것을 나타낸다.

이들의 의미내용 중 공통점은, 발화 시점에서 서술의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행동이나 상태이건, 아니면 과거의 기억내용이건 간에 그 내용을 발화시점에서 화자가 다시 지각으로 떠올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자가 발화 시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내용은 마땅히 前景이 되어야지, 背景으로 접어 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화자가 어떤 내용을 지금 지각하거나 과거의 기억을 지금 회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화자의 意圖가 개재되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까'를 부가시킴으로써 {-느-} 또는 {-더-}에 의해 지각된 내용을 前景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모순된 일인 동시에, {-느-}와 {-더-}의 意味와 '-까'의 話用論의 機能이 衝突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31) 및 (32)의 경우에는 '-까'를 첨가할 수 없다.⁴⁾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으)니'에 첨가되는 '-까'는 그 선행절의 내용을 인지적 처리 과정상 배경으로 묶어 넣는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⁵⁾ 이번에는 현대 한국어의 담화 연결표현 가운데 '-까'를 포함하는 '그러니까'를 담화, 화용론적 관점에서 살펴 보고, 특히 영어의 'so'의 경우처럼 우리말의 '그러니까'도 적합성 원리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담화현상을 전달하는 연결표현이라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5. '그러니까'와 적합성 원리

5. 1. 적합성 원리

그라이스(Grice 1975)가 주창한 對話의 格律(maxims of conversation)과 協同의 原理(Cooperative Principle)⁶⁾는 談話 解釋의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통화하며 어떻게 담화를 해석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그 基底에 介在하는 機構(mechanism)를 詳明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라이스가 제안한 협동의 원리는 화용론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격률들이 통화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격률의 내용으로 사용된 概念들이 우선 보다 더 嚴格하게 規定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게다가 그라이스가 주창한 원리 및 격률만 가지고 통화를 적절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담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청자가 대상 담화 자료에 대해 세울 수 있는 假說이 많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한 가설만을 선택한 이유는 이 격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餘他の 假說들을 選擇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령 관계의 격률로 사용한 "適合"의 개념은 그 자체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

4) 이 밖에도 '-(으)니까'는 {-리-}, {-나-} 등과 결합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다음 예를 살펴 보면,

- (1) 가. 내일은 때가 늦으리 {-니, *-니까} 오늘 일은 오늘 해 두자.
나. 멀리 보이나 {-니, *-니까} 푸른 물이로다.

(1가)와 (1나)에서 '-(으)니'는 사용 가능하지만, '-(으)니까'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실제로 이들 예문 및 앞서 논의한 {-거-}, {-느-}, {-더-}와의 결합 불가능 문제는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타의 문제들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담화, 화용론적인 기능 측면보다는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그 결합 및 분포 범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보다 합리적인 설명을 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형태론적 분포 내지는 후치사 및 여타 형태소들과의 결합 문제를 제기하는 예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2) 가. 내가 출발하 {-니, -니까, *-니는 -니까는}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나.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 {-니, -니까, *-니만, *-니까만} 그렇게 힘이 세지.

이들은 '-(으)니'와 '-(으)니까'가 특수조사와의 결합관계에서 드러내는 특성을 반영하는 예문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연히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즉 담화, 화용론적인 논의의 대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결합관계의 현상들이 비단 '-(으)니'와 '-(으)니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는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 전반을 모두 분석대상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현상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배경화 및 전경화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5) 본고의 논의에 동원된 예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설명], [상황제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온 것들이다. '-(으)니'와 '-(으)니까'가 연결하는 많은 것들은 주로 [이유] 또는 [원인]의 의미를 지니는 것들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으)니'만이 사용 가능하고 '-(으)니까'는 사용 불가능한 예를 찾아 보기 어렵다. 결국 '-까'의 전경화 저지 기능은 [이유], [원인]의 경우보다는 [설명], [상황제시]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6) 그라이스의 협동의 원리 및 대화의 격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Grice(1975), Wilson & Sperber(1988) 참조.

을 뿐만 아니라, “直觀에 의존하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이 많은 격률을 가지고 통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簡潔하면서도 說明力を 갖춘 談話 解釋의 原理를 기대하게 되는 바, 그것이 바로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 1986)의 適合性 原理다.

適合性(relevance)은 話用論에서 발전된 개념이지만, 다분히 認知論의인 바탕 위에서 규정되는 개념이다. 人間の 認知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명백히 알 수 없지만, 그 構成要素들이 인지과정상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最適의 位置에 分布되어 나름대로의 經濟性 原理에 입각해서 작동하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험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대상세계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정보처리상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는 자신의 인지환경상의 효과가 最適의 均衡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지과정을 수행한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스퍼버와 윌슨은 다음과 같이 적합성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適合性

1. 여타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주어진 정보의 처리를 통해 달성된 인지효과가 클수록, 그 정보를 처리한 개인에게 그 정보의 적합성은 크다.
2. 여타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주어진 정보의 처리에 들인 노력이 클수록, 그 정보를 처리한 개인에게 그 정보의 적합성은 적다.

정보처리 수단과 능력이 限定되어 있는 인간으로서는, 最適의 方式으로 표상되고, 가능한 맥락들 가운데 最適의 脈絡 안에서 처리되며, 사용 가능한 정보처리의 노력에 대해서 가장 큰 脈絡效果(contextual effects)를 달성하는 현상에 注意의 焦點을 맞추게 되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맥락 효과(또는 인지효과)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 저장소 내에서 新情報(new information)와 舊情報(old information) 간의 相互作用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만일 신정보가 구정보를 단순히 複製한 것이거나 그와 전혀 關聯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결과로 아무런 맥락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신정보가 인지환경에 첨가되어 구정보를 뒷받침하는 證據(evidence)의 역할을 하거나 이에 矛盾되는 증거로 작용할 경우, 그 신정보는 強度는 다르지만 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인지환경에 맥락 효과를 일으켰다고 한다. 담화를 생산하건 아니면 수용하건 간에 일단 노력을 들이는 작업에 관여할 때 인간은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한, 최대의 맥락 효과를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지를 작동시키는 핵심 개념 및 목표는 適合性의 極大化(maximization of relevanc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등화상에서 인간은 適合性을 保證받는가? 스퍼버와 윌슨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맥락 효과 면에서 화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의도하는 명제가, 자신이 기대하는 바 청자가 회수할 수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처리될 때, 청자의 주의를 끌 가치가 있는 충분한 맥락 효과를 낼 것을 보증한다. 정보 처리의 노력 면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청자가 가능한 한 용이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청자가 정당화될 수 없는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화자는 자신의 의도가 청자로 하여금 이해되게끔 하기 위해 통화하는 것인데, 청자의 노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방향으로 증가할 경우 자신의 의도가 오해받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정보처리의 노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담화의 전반적인 적합성이 떨어짐으로써 통화 자체가 수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이 생산하는 발화 --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스퍼버와 윌슨은 이를 推論的 通話行爲(an act of inferential communication)라고 부른다 -- 가 한편으로는 담화 참여자들에게 타당한 일련의 맥락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처리 노력으로 그 맥락적 효과를 달성할 때, 그 발화는 그 담화 참여자에게 있어서 最適의 適合性을 지닌다(optimally relevant)고 한다. 이런 논의를 거쳐 스퍼버와 윌슨은 다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적합성의 원리를 주창하고, 인간 의사소통 행위를 제어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이를 담화 해석에 적용한다.

適合性 原理(Principle of Relevance)

모든 推論的 通話行爲는 最適의 適合性을 保證한다.

이 원리를 그라이스의 이론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러나 원리가 간단하다고 해서 그 원리의 기능을 축소시켜 생각해서는 안된다. 위에 인용한 적합성 원리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발화가 담화 참여자에게 최적의 적합성을 보준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모든 발화가 무조건 아무에게나 최적의 적합성을 보준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의 그릇된 신념으로부터 어떤 발화를 생산할 수가 있고, 또 그 청자는 화자의 그 발화가 그릇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청자의 주의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영동하게 들리는 발화를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적합성을 보증하는 해석을 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적합성 원리를 실제로 담화 해석에 적용, 분석함에 있어서 스퍼버와 윌슨은 適合性 原理와의 一致性(consistency with the principle of relevance)을 논의의 중요한 도구로 채택한다. 한 발화가 해석상에서 적합성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퍼버와 윌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의 발화가 청자에게 최적의 적합성을 지닐 것으로 이성적 화자가 기대했다면, 즉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타당한 맥락효과를 청자에게 달성할 것으로 화자가 기대했다면 그의 발화는 적합성 원리와 일치한다고 하자(Wilson & Sperber 1986a: 76).

즉, 자신의 發話가 聽者에게 가능한 한 經濟的으로 妥當한 脈絡 效果를 達成하기를 理性的인 話者가 期待했다면 그의 발화는 해석상에서 적합성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와같은 적합성 원리를 영어의 담화 연결표현의 설명에 도입한 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5. 2. 담화의 추론적 연결표현 -- 영어의 'so'

블레이크모어(Blakemore 1987)는 적합성 원리를 談話 連結表現(discourse connectives)의 意味分析에 導入한 최초의 연구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영어 담화에 있어서 'so'나 'but'과 같은 推論的 連結表現들의 意味는, 그 연결표현을 포함하는 발화의 명제 내용에 그 연결표현이 의미적으로 기여한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발화의 명제내용이 거쳐야 하는 推論的 計算作用(inferential computations), 즉 適合性에의 言語的 制約 手段이라는 觀點에서 分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련의 논문들(Blakemore 1987, 1988a, 1988b, 1989)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논의를 확대시켜 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Blakemore(1988a)에서 다룬 영어의 'so'에 관한 논의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

영어의 'therefore'와 'so'는 담화의 추론적 (또는 논리적, 연역적) 연결을 수행한다는 共通點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이는 간단히 확인될 수 있다.

- (33) a. Peter is a movie star. Therefore he is rich.
b. Peter is a movie star. So he is rich.

(34) Every movie star is rich.

화자는 (33a)와 (33b)에서 담화 연결사 'therefore'와 'so'를 사용함으로써, 피터가 영화배우라는 命題와 背景知識인 (34)의 명제 내용을 前提(premises)로, 피터가 부자라는 結論을 推論的으로 (또는 論理的, 演繹的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블레이크모어에 의하면 이들 두 담화 연결사의 機能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살펴 보면,

- (35) a. There's \$5 in my wallet. So I didn't spend all the money then.
b. There's \$5 in my wallet. ??Therefore I didn't spend all the money then.
(Blakemore 1988: 188)

'therefore'와는 달리 'so'는 언제나 논리적인 正當化의 證據(proof of justification)와 연관지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자면 (35b)의 'therefore'와는 달리, (35a)에서 'so'가 이끄는 '나는 그때 돈을 다 쓰지 않았다'는 명제는 담화의 첫번째 명제, 즉 '내 지갑에 5달러가 있다'는 명제의 脈絡的 舍蓄(contextual implication)이라는 事實에 그 適合性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so'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레이크모어는 이들 두 담화 연결사의 용법에 있어서 이보다 더 뚜렷한 差異를 드러내는 예를 들고 있다. 가령 포장된 물품상자를 메리가 잔뜩 안고 집에 들어설 때 피터가 (36)와 같이

말할 수는 있지만 (37)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36) So, you've spent all your money.

(37) ??Therefore, you've spent all your money.

이들 예에서는 담화 연결사가 전달하는 명제에 先行해서 發話된 命題가 아예 없다. 만일 첫 번째 명제에 대한 論理的 推論의 結果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so'를 사용한다면, (36)의 경우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부분을 블레이크모어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명백히, 'so'는 방금 전에 발화된 내용을 통해서 (36)이 표현한 명제가 입증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so' 앞에] 아무런 말도 표현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명제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그 사실성(factuality)을 보증하는 내용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성을 보증하는 내용과 함께 나타나는 명제는 오직 발화된 명제들 뿐이다. 그런데 만일 (36)의 화자가 아무것도 입증하려 하지 않았다면, 왜 그는 ['so'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발화를 통해 표현된 명제가 하나의 논리적 결과라는 점을 나타냈겠는가? (Blakemore 1988: 189)

그렇다면 결국 이 'so'의 意味는 연역적, 논리적 추론과정이나 명제 내용에서의 기여도와 같은 관점에서만 분석될 수는 없고, 어떤 다른 시각에서 설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블레이크모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인지적 정보처리, 즉 適合性 原理로 설명하고 있다.

화자가 어떤 脈絡的 含蓄 Q를 導出할 수 있는 情報 P를 지니고 있고, 청자도 그 P를 지니고 있어서 餘他的 脈絡的 前提들과 함께 處理하면 Q를 導出할 수 있다고 생각할 根據가 있다고 假定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P의 맥락적 함축으로서 자신이 Q를 발화한다는 것을 청자가 인식해 주기를 바랄 때, 화자는 이미 청자에게 대단히 액세스 가능하다(highly accessible)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P를 直接 發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피터는 (36)과 같이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는, 그 상황에서 청자에게 “대단히 액세스 가능한” 정보 P가 하나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메리가 물품상자를 잔뜩 안고 들어오는 것 이외에도, 오랜 시간을 걸어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녀가 다리를 절며 들어온다든가, 안고 나갔던 강아지를 걸려서 데리고 들어 온다든가, 또는 피터가 담배를 피워 물고 있다는 등 여타의 많은 명제가 이 상황에서 액세스 가능한 것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메리는, 그녀가 물품상자를 잔뜩 안고 들어 온다는 명제에 대한 맥락적 함축으로 (36)을 解釋하는데, 이는 'so'의 용법과 함께 適合性 原理로 說明된다.

피터가 발화를 'so'로 시작한 것은, 이미 (35a)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so'가 이끄는 명제가 이미 청자에게 있어서 액세스 가능한 명제에 대한 맥락적 함축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런데 (36)이 표현하는 명제는 원리적으로는 메리가 다리를 절며 들어 온다든가, 강아지를 걸려 들어 온다든가, 피터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명제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지만, 이런 명제들과 (36)을 관련지어 정보처리하는 것은, 메리가 물품상자를 잔뜩 안고 들어 온다는 명제와 (36)을 관련시켜 정보처리하는 것보다 들이는 노력이 더 크다. 적합성 원리는 화자가 발화를 생산할 때 청자가 가장 적은 정보처리의 노력으로 타당한 맥락적 효과를 얻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청자가 담화 해석시에 당연한 것으로 상정도록 하는 것이므로, 메리는 자신이 물품상자를 잔뜩 안고 들어 온다는 명제의 맥락적 함축으로서 피터가 (36)을 발화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고 그 시각에서,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오직 그 시각에서만 (36)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36)에 제시된 영어의 'so'는 기존의 논리학이나 의미론적 방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적합성 원리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담화 현상이라 하겠다. 이번에는 우리말 담화 연결표현인 '그러니까'가 이와 並行的인 境遇라는 논의를 진행시켜 보기로 한다.

5. 3. '그러니까'와 적합성 원리

우리말 담화 연결표현 가운데 하나인 '그러니까'는 영어의 'so'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리로 타당한 설명을 가할 수 있는 담화 연결표현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38) 가. A: 그러니까 적합성 원리란, 하나의 경제성 원리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나. B: 그러니까 그게, 경제원칙이란 말이지?

- 다. A: 예. 그러니까, 노력과 효과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라. B: 그러니까 그 뭐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뭐 그런 얘기야?

위의 담화는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두 사람이 교환한 발화다. 이들은 서두 부분에서 '그러니까'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발화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러니까'의 자리에 完全히 代替될 수 있는 餘他的 우리말 談話 連結表現이 없다는 것이다. 간혹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위 예문들의 '그러니까' 자리에 '그래서'를 넣어 보면 그 결과로 어색한 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實際 發話 狀況에서 위의 경우에 '그래서'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자가 어떤 脈絡的 舍蓄 Q를 導出할 수 있는 情報 P를 지니고 있고, 청자도 그 P를 지니고 있어서, 餘他的 脈絡的 前提들과 함께 처리하면 Q를 導出할 수 있다고 생각할 根據가 있다면, 그런 狀況에서 만일 P의 맥락적 함축으로서 자신이 Q를 발화한다는 것을 청자가 인식해 주기를 바랄 때, 화자는 이미 청자에게 대단히 액세스 가능하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P를 직접 발화할 필요가 없다. 위 (38)의 담화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談話 共通 空間 속에서 서로가 정보 P를 共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자신의 발화를 그 P의 맥락적 함축이라고 상대방이 인식해 줄 것을 서로 期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담화 교환 초기의 상호 공유 정보 P는 (39)와 같은데, 이들은 굳이 (39)를 발화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라고만 발화함으로써 이제 발화하려는 내용이 (39)의 맥락적 함축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39) 나와 당신은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담화를 교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 과정에 의해서, (38나), (38다), (38라)는 각각 (40), (41), (42)를 상호 공유정보로 한 채 '그러니까'만으로, (38나), (38다), (38라)가 각각 (40), (41), (42)의 맥락적 함축이라는 점을 通話하는 것이다.

(40) 나와 당신은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담화를 교환하고 있는데, 당신은 '적합성 원리'가 하나의 경제성 원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41) 나와 당신은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담화를 교환하고 있는데, 내가 '적합성 원리'란 하나의 경제성 원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니 당신은 그게 경제원칙이란 말이냐고 물었다.

(42) 나와 당신은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담화를 교환하고 있는데, 당신은 '적합성 원리'가 하나의 경제성 원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내가 그게 경제원칙이란 말 이냐고 물으니 당신은 노력과 효과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8)의 각 '그러니까' 자리에 '그러니'가 올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으)니'가 주로 文語體에 나타나고, '-(으)니까'가 주로 口語體에 나타난다는 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러니'가 올 수 없고 '그러니까'만이 나타날 수 있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特別한 理由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담화, 화용론상의 '그러니까'의 기능이 논의될 수 있다.

즉, 담화 연결표현 '그러니까'는, 담화상에서 그에 先行하는 모든 情報를 脈絡的 背景知識으로 놓고, 後續되는 發話를 그에 대한 脈絡的 舍蓄(contextual implication)으로 나타내는 話用論的 機能을 담당하는 談話 連結表現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그러니까'는 선행정보가 화/청자 모두에게 액세스 가능할 경우 선행정보를 굳이 발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後續 發話도 화/청자 모두에게 액세스 가능한 것일 경우에 발화되지 않고 舍蓄(또는 省略)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타의 담화 연결표현과 區別된다.⁷⁾ 다음 예문에서,

7)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러니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화자가 담화상황을 판단할 때, 굳이 발화하지 않아도 청자에게 자신의 제보적 의도(informative intention)가 전달될 것이 확실한 내용이라면 명시적으로 발화되지 않을 것이다.

- (43) 가. A: 이번 자동차 판매 건(件)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사시켜야 된다.
 나. B: 그럼. 아마 이런 기회도 드물 걸.
 다. A: 무엇보다도 저쪽에서 우리 이익률을 잘 모르잖아.
 라. B: 그러니까.
 마. A: 아무튼 잘 해보자.

‘그러니까’ 말고는 (11라)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연결표현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그러니’가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러니까’는 우리말에서 여타의 담화 연결표현에 비해, 선행정보이건 후속정보이건 간에 그것이 談話空間 속에서 談話 參與者들의 共有認識 範圍에 들어가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단히 敏感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에 포함되는 ‘-까’가, 선행절의 정보를 인지공간의 前景(foreground)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와 같은 담화 연결표현은 그 분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다음 예의 ‘보니까’의 경우도 어휘화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예로서 이제까지의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44) 가. 보니까 그 친구, 말이 많더구만.
 나.??보니 그 친구, 말이 많더구만.

‘보니까’의 앞에 아무런 선행 발화가 없어도 (12가)는 수용 가능하지만, (12나)는 어색한 발화로 간주된다. 이 역시 ‘그러니까’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담화 연결표현인 ‘so’와 우리말의 ‘그러니까’가 동일한 담화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so’가 여타의 연결표현, 즉 ‘therefore’, ‘thus’, ‘hence’ 등과 구별되고, 그 구별되는 특질의 기준이 적합성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듯이, 우리말의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등과 구별되며, 그 차이점이 적합성 원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하겠다.⁸⁾

6. 맺는 말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접속어미 ‘-(으)니’에 첨가되는 ‘-까’의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으)니’와 ‘-(으)니까’의 구별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들 두 접속어미를 구별짓는 요인이 거의 논의된 바 없었으나, 본고의 논의를 통해 ‘-까’에 일정한 화용론적 기능이 들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까’가 접속어미 ‘-(으)니’에 첨가되어 수행하는 기능을 다시 정리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45) 現代 韓國語 接續語尾 ‘-(으)니’에 添加되는 ‘-까’는 先行節의 命題內容이 認知的 處理過程上 前景化되는 것을 阻止하는 談話, 話用論的 機能을 遂行한다.⁹⁾

8) 그렇다면 ‘그러니까’를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등과 구별짓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과연 ‘-까’가 수행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그 기능을 ‘-까’만이 담당한다고 주장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적합성 원리로 대단히 잘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말 접속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까’는 적합성 원리만 설명되는 현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까’가 포함되는 모든 현상이 적합성 원리로 설명된다면, ‘-(으)니까’ 앞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명제도 명시적으로 나타나선 안된다. ‘-까’만 가지고 화/청자가 이미 배경지식을 공유한다는 점이 모든 담화 참여자들에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적합성 원리가 지니고 있는 설명적 도구의 약점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모른다. 만일 적합성 원리가 더욱 발전됨으로써 담화 연결표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접속문에서의 ‘-까’의 화용론적 기능을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 결과로 ‘-까’가 우리말에서 하나의 談話標識(Discourse Marker)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9) 前景 및 背景 개념으로 ‘-까’를 설명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이 설명의 전부일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前景 및 背景 개념 자체에 포함되는 자질들로서 아직 상세히 검토되지 않은 내용들(가령, 시제나 상과의 연관 관계 등)이 산재해 있다. 또한, 만일 ‘-까’가 前景 및 背景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될 수 있다면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 가운데 前景 및 背景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또 다른 접속어미들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이들에 관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로 미룬다.

이는 이정민(1980)에서 지적한 바, ‘-(으)니까’의 경우가 ‘-(으)니’의 경우보다 더 客觀的이고, 理由를 댈에 있어서 主節에 더 緊密하게 連結되어 있다는 論議와 一脈相通하는 것이기도 하다. ‘-까’에 의해서 背景으로 묶이는 命題內容은 話/聽者 모두가 共有하는 知識이니 客觀的일 수 밖에 없고, ‘-(으)니까’의 後行節에 前景으로서의 情報 焦點을 지닌 命題內容이 나타나므로 더욱 主節에 密着된 發話現狀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담화 연결표현으로서의 ‘그러니까’ 역시 담화, 화용론적 현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영어의 ‘so’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화용론적인 이론인 適合性 原理에 의해 ‘그러니까’가 전달하는 談話 連結現狀이 잘 說明된다는 점으로 立證되었다.

이제까지 진행한 본고의 논의에 무리가 없다면 이제는, 기존의 연구들이 ‘-(으)니’와 ‘-(으)니까’를 뚜렷이 구별하지 않고 이들이 마치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인 것처럼 취급해 온 입장을 바꿔서, ‘-(으)니’와 ‘-(으)니까’를 別個의 形態素로 간주하든가 아니면 ‘-(으)니’에 ‘-까’를 하나의 獨立된 談話, 話用論的 形態素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종래의 국어 문법 가운데 接續語尾의 體系가 再調整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본고에서 ‘-까’의 담화, 화용론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것처럼, 餘他的 接續語尾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 또는 이론틀로서 잘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介在하는지의 與否를 폭넓게, 그리고 매우 精密하게 分析, 研究하는 일이 절실하고도 시급히 要求된다는 점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기진 (1985) 국어 접속어미 ‘-니’와 ‘-니까’의 연구, 『국어학』 14, 국어학회.
- 김승곤 (1978) 연결형 어미 ‘-니까, -아서, -므로, -때’의 말쓰임에 대하여, 『인문과 학총서』 11, 건국대.
- _____ (1979) 선택형 어미 ‘-거나’와 ‘-든지’의 화용론, 『말』 4, 연세대.
- _____ (1980) 연결형 어미 ‘-니까, -아서’의 화용론, 『남광우박사 화갑기념논총』.
- _____ (1981 가) 한국어의 연결형 어미 ‘-건대’와 ‘-거늘’, ‘-기에’와 ‘-는지라’의 화용론, 『학술지』 25, 건국대.
- _____ (1981 나) 한국어 연결형 어미의 의미분석 연구 (I), 『한글』 174/175, 한글학회.
- _____ (1984) 한국어 이음씨끝의 의미 및 통어기능 연구 (I), 『한글』 186, 한글학회.
- _____ (1986) 이음씨끝 ‘-게’와 ‘-도록’의 의미와 통어적 기능, 『국어학 신연구 I』, 탑출판사.
- 김진수 (1983) 가정, 조건문과 원인, 이유문 고찰, 『어문연구』 12, 어문연구회.
- 남기심 (1978 가) ‘-아서’의 화용론, 『말』 3, 연세대.
- _____ (1978 나) 국어 연결형 어미의 화용론적 기능 — 나열형 ‘-고’를 중심으로, 『연세논총』 15, 연세대.
- 남기실, 루코프 (1983), “논리형식으로서의 ‘-니까’ 구문과 ‘-어서’ 구문”, 『국어의 통사 의미론』, 탑출판사.
- 서태룡 (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 _____ (1990) ‘-으니까’와 ‘-다가’의 (-가), 강신항교수 회갑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 송문준 (1985) 현대국어 접속문의 의미연구 — 진리함수 관계와 화용론적 특성에 관하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 유동준 (1980) 한국어 접속화 연구 — 접속어미 ‘-니까’의 화용론, 『연세어문학』 13.
- 윤평현 (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신문화사.
- 이기동 (1977) 대조, 양보의 접속어미의 의미연구 (I), 『어학연구』 13-2, 서울대.
- _____ (1980) 연결사 ‘-는데’의 화용론적 기능, 『언어』 5-1, 언어학회.
- 이상복 (1981) ‘-아서’, ‘-니까’, ‘-느라고’, ‘-므로’에 대하여, 『배달말』 5, 배달말
학회.
- 이정민 (1980), 한국어 조건·원인구문의 통사론과 의미론,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
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환목 (1981) 양보문의 의미분석, 『어학교육』 12, 전남대.
- 전혜영 (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 한동완 (1990) ‘-으니’ 접속구성의 의미에 대한 일고찰 — 시제 현상을 중심으로, 『이
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탑출판사.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lackwell.
- _____ (1988a) ‘So’ as a constraint on relevance. In R. Kempson (ed.)
Mental Representation. Cambridge: CUP.
- _____ (1988b) The organization of discourse. In F. Newmeyer (ed.)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vol. 4.
- _____ (1989) A Relevance Theoretic Analysis of ‘BUT’. *Linguistics &
Philosophy*.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vol. 3).
- Sperber, D. and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Wilson, D. and Sperber, D. (1986a) Pragmatics and modularity. *CLS* 22, part 2.
- _____ (1986b) inference and implicature. In C. Travis
(ed.) *Meaning and Interpretation*. Oxford: Blackwell.
- _____ (1988) Representation and relevance. In R. Kempson
(ed.) *Mental Representation*. Cambridge: CUP.